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유영민 목사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 1-11) ..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 3:1-5)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하고, 잘 순종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더럽고 추하고 보잘 것 없을 때에도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택하고 섬기는 죄악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 주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몸을 팔고 사는 사랑 받지 못할 여인 고멜을 취하여 결혼을 하고 아내를 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멜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까지 낳습니다. 하지만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배은망덕한 여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떠나간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고멜과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호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의 역할은 첫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서 그 사랑, 그 복음, 그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해야 합니다.** 호세아가 사랑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더 이상 받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고 데려 오기 위해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십자가라는 댓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시간의 댓가, 희생의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댓가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소식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실시간 새벽예배** - 주중 새벽 예배 (화-토 6 시) 를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면 예배** - 3월 첫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행정지침에 따라 마스크와 발열 체크등 준수하여 주십시오. 예배 후 모임과 식사는 없습니다.
4. **부장 모임** - 3월 14일 주일 오후 12시에 부장모임이 있습니다.
5. **초원모임** - 3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초원모임 (Zoom) 이 있습니다.
6. **시간변경** - Daylight Saving Time 이 3월 14일 주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 | 3/14 | 3/21 | 3/28 | 4/04 |
|------|------|------|------|------|
| 대표기도 | 유영민 | 심영민 | 김영란 | 윤완선 |
| 헌화성도 | | | | |
| 봉사당번 | | | | |

예배출석자 및 헌금

| 예배 출석자 | 주일예배 | |
|----------|-------------|--|
| | 주일학교 | |
| | 수요 기도회 | |
| | 토요 새벽예배 | |
| 지난주 헌금통계 | \$ 5,481.87 | |

행사 및 모임

| | | |
|-----|-----------|-----------------------|
| 3 월 | 봄 대청소 | 날 짜 미 정 |
| | 고난주간 특별예배 | 3 월 30- 4 월 2 일 (화-금) |
| 4 월 | 부활절예배 | 4 월 4 일 (주일) |
| | | |

목장현황

| 목장이름 | 모임 날짜 | 모임 장소 | 인원 | 다음 장소 |
|-------|----------|-------|----|-------|
| 소망목장 | 1 월 22 일 | 이진수 | 17 | 교 회 |
| 믿음목장 | 2 월 23 일 | 교 회 | 7 | 교 회 |
| 나눔목장 | 2 월 23 일 | 유영민 | 6 | 심영민 |
| 섬김목장 | 3 월 05 일 | 이진수 | 8 | 이진수 |
| 은혜목장 | 2 월 09 일 | 정명희 | 7 | 윤완선 |
| 신바람목장 | 1 월 11 일 | 이진수 | 6 | 손다니엘 |
| 둥지목장 | 2 월 02 일 | 이인호 | 5 | 오상균 |
| 따스한목장 | 1 월 11 일 | 김인수 | 7 | 서영희 |
| 살롬목장 | 2 월 21 일 | 조정욱 | 7 | 김창용 |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 목장 | 목자/목녀 | 연락처 | 선교사 |
|-------|---------|---------------|-----------------|
| 소망목장 | 정병철 | 510, 415-4156 | 선교사 (Malaysia) |
| 믿음목장 | 박종철/박승자 | 510. 909-8612 | 유성남 (중국) |
| 나눔목장 | 유영민/유경애 | 510. 318-0747 | 정주환(소망공동체) |
| 섬김목장 | 이진수/이은진 | 510. 415-0671 | 장철호 (미얀마) |
| 은혜목장 | 윤완선/윤선예 | 510. 340-1014 | 조영문 (Vietnam) |
| 신바람목장 | 유경주 | 010 6427-2431 | 박완주/헝가리집시 |
| 둥지목장 | 이화선/이인호 | 510. 915-5578 | K 선교사(Malaysia) |
| 따스한목장 | 김영란/김인수 | 510. 468-4720 | 김정림 (탄자니아) |
| 살롬목장 | 조현숙/조정욱 | 510. 396-6952 | 조항권 (우간다) |

성경공부

| | |
|---------------|------|
| 새가족 성경공부 | 4 주 |
| 생명의 삶 | 13 주 |
| 확신의 삶 | 7 주 |
| 새로운 삶 | 13 주 |
| 경건의 삶 | 13 주 |
|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 13 주 |
| 말씀의 삶 | 13 주 |
| TEE 성경공부-12 주 | 12 주 |

악에 대한 질문

청소년기에 들어선 아들들이 요즘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어 칼럼에 올려 보았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였는가?” 그러자 한 학생이 용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은 악이네” 이 질문에 학생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그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교수는 “무슨 질문이 그런가?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넨 추운 적이 없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은 말합니다. “교수님, 사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입니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추위라는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학생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교수는 “물론 존재하지” 그러자 학생은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사실상 빛의 부재입니다. 사실 뉴턴의 프리즘을 이용하여 불빛을 여러 색으로 나누고 각 빛깔의 다양한 파장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의 양을 측정하면 됩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학생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교수는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물론이지. 이미 말한 대로야. 우리는 매일 보지 않는가? 매일 세상 곳곳의 각종 범죄와 폭력을 보지 않는가? 이러한 현상들을 악 이외에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에 학생이 대답하였습니다. “교수님, 악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치 어두움이나 추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두움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논쟁은 끝났습니다.

예배및모임안내

| | | |
|--------|----------------|--------|
| 주일대예배 | 오전 10 시 30 분 | 본당 |
| 어린이예배 | 오전 10 시 30 분 | 유치부실 |
| 영어예배 | 오전 10 시 30 분 | 영어부예배실 |
| 주일성경공부 | 주일오후 1 시 | 유년부실 |
| 수요기도회 |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 본당 |
| 새벽기도회 | 매일화-토오전 6 시 | 본당 |
| 목장모임 | 매 주 | 목장별각가정 |

섬기는분들

| | | |
|--------------------|--------------|---------------------|
| 담임목사: 이진수 | 510-415-0671 | timjdsn@gmail.com |
| Youth: Paul & Lena | 510-872-2212 | Paul.lee@gpmail.org |
| 어린이교회: 이은진 | 510-415-1696 | ejoysong@gmail.com |
| 안수집사: 고헌명, 윤완선 | | |
| 섬김목장:이진수목사 |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
| 나눔목장:유영민목자 |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
| 둥지목장:이화선목자 | 살롬목장: 조현숙목자 |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

교회약도

